

기업·소상공인 미소 짓는 민생경제 대도약



지난 2022년 12월 14일 도청에서 열린 1기업-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출범식.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감
소상공인 민생안전 소통 간담회



제1회 청년창업박람회



전북 일자리 거버넌스 출범 및 업무협약식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한 해 동안 72개 기업으로부터 총 2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역대급 성과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4,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자치도는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2024년 주요 성과: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2024년의 대표적 성과로는 새만금 이차전지 생산 거점으로 자리 잡은 동우하이텍의 대규모 투자가 있다.

동우하이텍은 3,380억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을 확충했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 지역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전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현금지원(29.4%)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전북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 또 다른 성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다. 바이오, 탄소융복합, 모빌리티 등 3개 분야의 특구가 지정돼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이로써 전북은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주목 받는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전북의 2025년 과제: 기업유치와 산업 인프라 확충

2025년 전북자치도는 지역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 투자유치 전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산업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별 산업단지 가용지 발굴과 산업단지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기업 선호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등은 이미 높은 임주율을 보이고 있어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 규제 완화,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이 포함된다.

▲2025년 중점 추진 방향

전북자치도는 기업유치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특히,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해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청년 및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기반 강화에 필수적인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한다.

전북은 전국 3위 규모의 사회적경제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 유동성 공급 확대, 경영안정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도 포함된다.

▲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

2024년 기업유치 성과와 2025년 과제 실현을 통해 전북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전북을 글로벌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투자유치로 확보된 경제적 자원은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24년의 투자유치 성과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값진 결과이며, 전북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2025년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전북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중심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전북 유망스타트업 스케일업 100 발대식

바이오 등 3개 분야 특구 지정
전북, 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아
올해 투자유치 전략 더욱 강화
산업단지 장기 종합계획 수립
첨단산업 유치 투자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책 병행

또한,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다. 바이오, 푸드테크, 기후테크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개발과 관련된 지원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 제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야

전주매일 캠페인